



## 이탈리아, 유럽 재정위기 전파로 금융시장 요동

이정환 선임연구원

- 그리스 재정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탈리아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침.
  - 7월 11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 거래일 대비 40bp 상승한 5.71%를 기록함으로써 2001년 6월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에 도달함.
  -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쳐 아시아 15개국 증시가 모두 하락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1일 영국 런던의 금값이 온스 당 1,555.5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이탈리아는 유로지역 3위 경제대국으로 경제규모가 큰 만큼 EU가 구제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요동을 부추김.
    -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스페인을 구제하는 데 3,0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탈리아는 6,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스 구제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4,400억 유로에 불과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는 이탈리아를 구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미국 헤지펀드들은 이탈리아 위기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여 6월부터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 숏(매도)포지션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짐.
    - 그리스 위기 해결책 지연은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국채보유를 꺼리게 한 것으로 풀이됨.
    - Wall Street Journal은 스위스 프랑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처가 되었다고 보도함.
    - 스위스 프랑은 2011년 초 이후 유로에 대해 24%, 달러에 대해 12% 가치 절상됨.
-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정책 실행 불투명, 국가부채 과다(2조 5,200억 달러), 중·단기 상환부채(2011년 만기도래 국채규모 1,200억 유로, 5년 이후 상환부채 9,000억 유로) 압박등인 것으로 지적됨.

- 이탈리아 총리가 재무장관의 긴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장관 사임설이 유포되면서 재정긴축정책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이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함.
- 게다가 7월 11일 이탈리아 금융불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유로지역 재무부장관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7월 중순 발표될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이탈리아 은행이 대규모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위기설이 증폭됨.

■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함.

- 첫째,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상황은 다른 주변부 국가보다 양호함.
  - EU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6%로 주변국(그리스 10.5%, 아일랜드 32.4%, 포르투갈 9.1%, 스페인 9.2%)이나 유로지역 평균(6.0%)보다 낮음.
- 둘째, 그리스가 S&P로부터 최하 신용등급인 CCC를 받은 것에 반해, 이탈리아는 여전히 투자 등급인 A+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함.
  - 6월 말 이탈리아는 3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발행에 성공한 바 있음.
- 셋째,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120%로 유로지역 중 그리스(143%) 다음으로 높지만, 국채의 75%를 이탈리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 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일본은 국가채무 비중이 2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국민이 95%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넷째, 이탈리아 은행들이 주변부 국가들에 투자한 규모는 다른 유럽 주요국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발 위기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독일 은행들은 그리스 국채의 43%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은행들은 4.5%에 그침.
- 다섯째, 아일랜드·스페인과 달리 이탈리아의 경우 주택 버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한 이탈리아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낮음.

(Financial Times 7/12, Wall Street Journal 7/13)